



가정의 달, 특별한 주말 힐링콘서트

서귀포관악단 기획공연
이달 20일 서귀포예당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달 20일 오후 3시 서귀포예당에서 특별한 주말 힐링 무대가 펼쳐진다.

올해 도립서귀포관악단의 기획공연 '토요일힐링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날 무대는 보다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기 위해 소극장이 아닌 대극장에서 오케스트라 규모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날엔 지난 해 '오페라 이중섭'에서 태연 아역을 맡았던 강은유 어린이와 함께 동요곡이 연주된다.

또 제주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음 소속의 색소포니스트 김재환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다. 이외에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유포니움 백승연과의 협연곡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귀포관악단 트레이너 김동원이 지휘를 맡는 이날 공연의 첫 무대는 프란츠 폰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이 연다.

두 번째 곡은 유포니움 백승연과 함께하는 버트 에퍼몬트의

'그린힐'로, 차분한 선율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곡이다.

발달장애인 색소포니스트 김재환과는 페드로 이투탈대의 '페체나 차르다'를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필립 스파크의 모음곡 '하이랜드 찬가'다. 원곡은 7개의 곡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엔 그중 3곡을 발췌한 모음곡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 예매는 서귀포시 E-Ticket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예매하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당일 잔여좌석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김지훈 작품



장경희 작 '연지도'

사랑 넘치는 계절에 마주하는 따뜻한 시선

5월 첫 주말도 전시 풍성

어린이날 공휴일이 낀 5월의 첫 주말, 온 가족 함께 전시장 나들이도 좋겠다. 가정의 달에 맞춰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곳곳에서 전시도 풍성하다.

▶김보라 동화작가 그림 전시회= 5일 어린이날,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에서 제주연작동화를 출간했던 김보라 동화작가의 첫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

'모두를 위한 어린이날'이란 주제를 내건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어린 딸과 반려견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 등 제주에서의 일상적 모습이 담겨있는 따뜻한 가족이야기를 전한다.

▶'제주로 온 그림편지' 전= '불안'에 펼쳐 우는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주제로 제주 작가 4명과 육지 작가 14명이 함께하는 전시다. "세계는 사랑으로, 평화로 이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전시는 5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작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댕공장 설립에 후원할 예정이다.

▶제주유민화연구회 '민화로 봄소풍'=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벵다왓에선 4일부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주유민화연구회의 세 번째 정기 회원전 '민화로 봄소풍'이 열린다.

전시장은 문소미, 백중의, 김미경, 김은주, 김해울, 노선여, 민화순, 박채희, 백경미, 오유정, 유현주, 여아람, 장경희, 장명희 등 14명 작가의 작품 20여점이 내걸린다.

▶제주미협 회원전=오는 6일부터 제주 문예회관 1·2전시실에선 제82회 (사)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이 열린다. 1인 1작품씩 총 215점이 출품됐다.

제주미협은 "시각 예술가들의 표현이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며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고민하고자 한다"는 기획 의도를 전했다. 전시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김지훈 첫 개인전 '색채의 온도'= 제주 출신 청년작가 김지훈의 첫 개인전 '색채의 온도'가 KBS제주방송총국 갤러리에서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다. 작가는 너무나 익



강지은 작 'fall-2023'

숙해 무심코 지나쳤던 돌담, 식물 등을 소재로 삼아 추상 형식을 빌려 단순한 형태와 자신만의 색채로 오롯이 표현해 낸다. 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며 느끼는 설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 복잡하고 다양한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들을 자연에 빚어 표현한다.

작가의 작품 25점은 오는 15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도심 거리 달굴 '거리예술제' 6일 개막

제주시, 누웨르루 거리·칠성로 상점가에서

도심의 거리를 예술의 향기로 채울 제주시 '2023 거리예술제'가 오는 6일 개막한다.

총 51개 팀이 참여하는 올해 거리예술제는 연동 누웨르루거리와 칠성로상점가에서 밴드·대중음악·관현악·국악·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연동 누웨르루거리에선 상반기(5~6월) 매주 토요일, 하반기(9~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칠성로상점가에선 상·하반기 모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운영된다. 하계기간(7~8월)과 추석 연휴 기간(9월 29~30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거리예술제의 문을 여는 6일 연동 누웨르루거리 공연은 연동 민속

보존회의 길트기 공연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주넌드, 밴드 이강, 미술사 김민형의 무대가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칠성로 상점가거리에서 스텔시티, 시크릿코드, 소울메이트의 밴드 공연이 시민과 만난다.

6월 무대엔 조이가락, 길잡이태권도, 어찌다밴드, 제주아카데미 등이 출연하는 음악연주, 태권도, 밴드, 대중음악 공연 등이 오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리예술제 개최로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 문화예술 분야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4·3문학 탐방 프로그램

김석범·김시중 작품 배경 탐방

제주문학관은 김석범, 김시중 작가의 작품 배경을 탐방하는 '김석범·김시중 문학을 찾아서'를 이달 20일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문학관 특별기획전 '김석범·김시중-불온한 혁명, 미완의 꿈' 연계 프로그램으로, 탐방 장소는 두 작가의 작품 배경인 북동중학교, 산지천, 산천단, 조천포구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선착순 40명)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며, 제주문학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성을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김석범, 김시중 작가의 4·3 작품 배경장소를 직접 탐방해 4·3의 진실을 밝혀려 했던 작가의 발자취를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차세대 예술인 발굴...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제주음협, 이달 20~2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서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오능희)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제32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가 이달 20일과 21일 이틀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다.

전국의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연마한 실력을 무대에서 한껏 발휘할 기회를 장이다.

올해 콩쿠르는 20일 피아노, 실용음악, 성악, 국악 경연이, 21일엔 현악과 관악 경연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참가 부문에 실용음

악(재즈 피아노, 보컬, 드럼)이 신설돼 참가 기회가 확대됐으며, 대상과 차상 입상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일까지다. 참가곡은 자유곡 1곡이다. 세부사항 문의는 이메일(jeju_music@naver.com)로 하면 된다.

모든 곡은 암보로 반복 없이 연주되며, 반주자는 참가자가 동반해야 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재 제주전북향우회 창립 및 취임식

향우회 회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도 재 제주전북향우회 창립 및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실 줄 사료되오나 성공적인 창립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제주전북향우회 회장 김 신 성

다음

- 일시: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18시 30분
- 장소: 아젠티피오레컨벤션 (제주시 서광로 112)

- 안 건: 신입회원모집
- 대 상: 전북출신제주거주자
- 연락처: 사무총장 김범준 010-8640-8885, 회장 김신성 010-4696-7500

